

Color Theme I _ RELICS

고고학이나 고대의 것에서 지혜를 얻는 태도



자각(self-realization) 창조자(makers) 하는 것(doing)

개개인의 살아있는 경험(experience)

Power of Individuals

change the world by individu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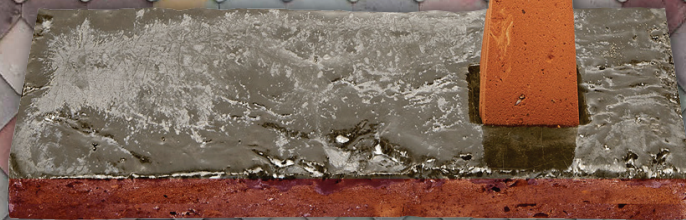
2016년 Spring과 Summer 시즌에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문제점들을 자각하고 해결해 내는 능력이 요구된다. 넘치는 데이터들 속에서 개인의 역할과 살아있는 경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어지는 시즌이 될 것이며, 자신을 믿고, 신뢰를 기본 가치로 여기는 시즌이 될 것이다.

2016년 Spring과 Summer 시즌에는 개인의 힘이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파워 오브 인디비주얼(Power of Individuals)’** 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즌의 이야기를 풀어간다.

RELIQS

Focusing on "Minor" Things

일상의 평범한 사물들을 고대 유물과 같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난다. 현대 문명의 토대를 마련한 미적 원형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테라코타, 가죽, 세라믹 등 소재 자체에서 느껴지는 미(aesthetics)가 중시된다. 고대의 사물에서부터 액세서리 소품, 만찬 혹은 관습에 이르기까지 고대부터 현대까지 있어 왔던 사소한 것들(trivial things)로부터 영감을 얻어 이 시대의 모더니티(modernity)를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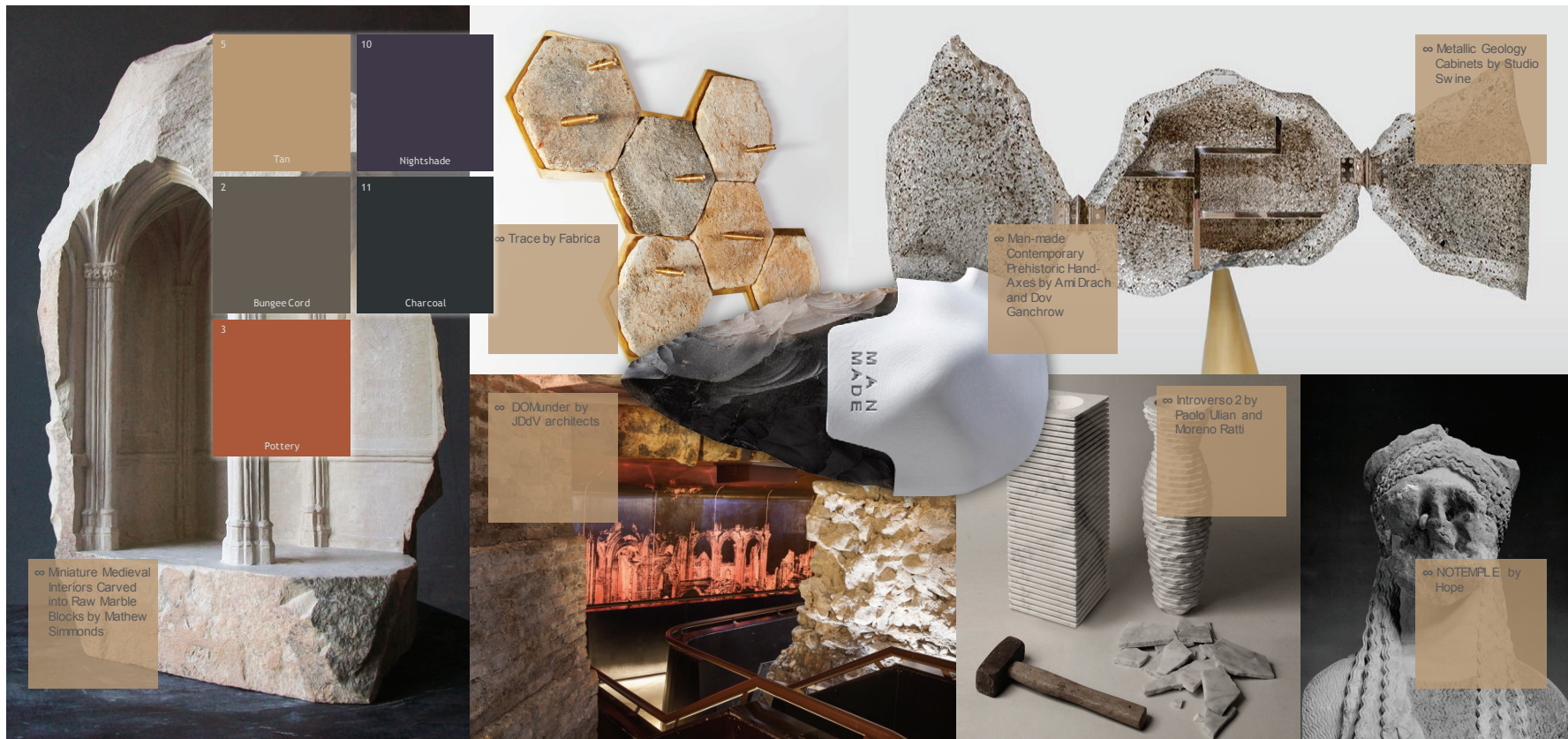




Colors from Ancient Archeology

고대 유물로 부터 온 컬러들

RELICS의 컬러 팔레트는 고대 유물에서 온 컬러들로 구성 된다. 고대의 염료와 다양한 테라코타(terracotta)의 컬러들이 페일한 화이트(pale white)와 더스티(dusty), 그리고 산화된(oxidized) 컬러들과 함께 고대 일상의 소재들을 새로운 미로 표현한다. 특히 이 컬러 팔레트에서 주목해야 할 베르디그리스(verdigris)이다. 구리(cooper) 등에서 오래되면서 생기는 푸른 녹의 컬러로, 지난 시즌에서 주요 컬러로 제안한 녹청색, 파티나 그린(patina green)의 연장선에서 키 컬러(key color)로 제안 하고 있다.



archival aesthetics

아카이브 미학

RELICS의 첫 번째 컬러테마에서는 **현대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고대의 유물들의 소재들이나 모티브들이 그 자체로 많은 영감을 주며 새로운 미로 전달되는** 테마이다. 네델란드 지하의 동굴, 과거의 유물의 흔적들을 표현한 사례들, 소재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디자인 들에서 보이는 컬러와 소재의 표현이 중요하다. 고대 유물의 오래된 듯한 세라믹 질감을 표현하는 컬러들, **차콜(Charcoal), 번지 코드(Bungee Cord), 나이트 웨이드(Nightshade), 포터리(Pottery)** 등의 텍스처가 다양하게 제안된다.



aged beauty

자연스럽게 낡은 미(美)

세 번째 테마에서는 사물들이 자연스럽게 낡거나 먼지가 쌓이듯이 오래 된 느낌으로 표현되는 것에 집중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한 구조들은 자연스럽게 낡고 산화되며 오래된 듯한 느낌을 연출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렉서리한 감성을 전달하는 느낌을 지닌다. 자연스럽게 낡은 듯한 감성을 주기 위해 독특한 워시(wash)와 다이(dye) 용법을 사용해서 제작된 가방, 오래된 테라코타(terracotta) 컬러의 느낌, 아가노비치(Aganovich)의 슈즈, 그리고 불리(Bully) 1803 향수에서 선보인 푸른 녹의 컬러들이 주요한 컬러로 제안된다. 포터리(pottery)와 베르디그리(verdigris), 토프(taupe)를 중심으로 산화된(oxidized) 컬러와 더스티(dusty)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archetypal elements

원형의 요소들

RELICS의 마지막 컬러테마에서는 고대의 문자나 기호 혹은 원형, 삼각형, 마름모 형 등 기본의 모형들이 심플하면서 미니멀한 느낌을 전달한다. 삼각뿔, 네모, 마름모 등 원형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이라던가, 문명을 형성하는데 쓰여진 고대의 여러 문자나 기호들을 활용한 디자인들이 제안된다. 이 테마에서 컬러는 아이보리(ivory)를 기본으로 그레이(grey), 탠(tan) 등의 모노크롬(monochrome) 조합의 차분한 컬러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6 S/S Color Proposal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렌드센터(CFT)에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디자인 산업에서 컬러 트렌드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는 디자인DB(<http://designdb.com/>)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렌드센터 전략기획팀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5, 남도빌딩 5층
T. 02)549-2362 F. 02)549-4745 H. www.cft.or.kr

(CFT) (재)한국컬러&패션트렌드센터